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 (www.keas.or.kr) / 발행인 고전 / 편집인 홍창남 / 편집팀 이호준, 장우천, 김용준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50대 집행부 운영방안]

박 선 형 | 제50대 학회장 / 동국대학교 교수

존경하옵는 선배 교수님과 학문지우 회원 여러분, 2022년 학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 박선형입니다. 창립 54년, 학회지 발간 39년, 사단법인 출범 등의 자랑스러운 발전 역사를 가진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학문공동체의 전형(典型)으로서 명실 상부한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수월성은 선대 학회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동료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적 집단지성 덕분입니다.

학회 발전의 반세기 전통을 대변하는 제50대 학회장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가슴 벅찬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선대 회장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제50대 집행부는 동료 회원님들의 협력적 지성과 실천적 지혜를 받들어 ‘함께 발전하는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학회의 50년 발전 역사에 상응하는 이론 발전과 학문 체계 정립에 대한 학문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염원과 의지는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The Newsletter)의 정기적 출간 내용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특집호’ 제94호(2007.12.8.)는 학회 운영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참조기제적 아이디어를 매우 풍부하게 다룬 바 있습니다. 학회 활동 회고와 더불어서 학회 활동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발전적 제언들이 전 세대를 대표하는 연구진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집행부 선대 회장님의 취임사와 더불어 제107호(2011.4.30.) 주론: 학회의 지속한 발전을 위하여(임연기), 제111호(2012.5.15.) 논단: 우리가 원하는 학회(김병찬), 논단II: 학회지 발간체계 변화와 학문적 자세에 대한 단상(박선형), 제121호(2014.12.31.) 주론: 한국 교육행정 이론의 문제와 과제 그리고 학회(신현석), 제126호(2016.4.30.) 주론: 한국 교육행정 연구의 문제와 과제 그리고 학문공동체(신현석) 등도 학회 운영과 학술 활동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미래적 발전을 도모하는 전환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학의 학문 발전과 지식 성장은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이론화 과정과 다양한 연구방법론 활용을 통한 종합적 구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망한다는 뜻을 가진 어원(theori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론(theory)은 세상을 성찰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공동의 행위와 탐구를 뜻하는 meta, 길을 의미하는 hodos, 이성과 진리를 표방하는 logos의 결합에서 유래된 방법론(methodology)은 진리에 이르는 공동 탐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세계관으로서의 이론**’과 ‘**진리에 도달하는 탐구 행위로서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문공동체의 성찰적 고민과 학술적 담론은 그 어떠한 연구 주제보다도 학회의 발전적 위상 정립과 연구 활동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시의성과 적실성 및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50대 집행부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정립과 이론화 발달 및 연구접근의 다원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전사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교육행정학의 세계관 확장과 지식 성장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16개 분과위원회에 더해서 **세대교류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년 4회의 소규모 학술행사를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진학자 발표 기회 확대와 학문 세대 간 학술교류 강화**를 위한 **선순환적인 학습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대교류연구위원회의 새로운 운영 형식은 자유주제 발표, 기획주제 심포지움, 학술대회 논의 주제 심층 토론, 특정 분야 저명 연구자 초청 강연 및 집중 질의 등 기존 학술대회에서 시도해보지 못한 다양한 방식을 채택 활용함으로써 학회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문후속 세대와 교수 연구진 간의 참여적 담론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학술편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 세대간 연구역량이 결집된 전문학술서(The Handbook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를 **기획 출간함으로써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적극 제고**하겠습니다. 기존의 「한국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은 출간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 동안 학문의 발전 속도 역시 기술 개발에 대한무어의 법칙 못지않게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여건과 학문 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교육행정학의 내용 체계와 외연 범위 역시 심층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년부터 최소 2년간의 기획 집필 작업을 통해 해당 전문가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연구 역량을 집적하는 대표적 출간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제도적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학회 운영의 미래적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환류 기제로서 **1사분기 내로 학회 전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간략한 개방형 의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회를 비롯한 모든 조직 유형의 발전은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 활성화와 열린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필요한 기존 관행과 의례 절차 등을 수렴된 의견에 기초하여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정 개정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50대 집행부와 사무국은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마음으로 성실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론 |

[대선정국에 즈음하여]

임 연 기 | 공주대 명예교수 / 제39대 전 회장

I

주기적으로 어김없이 돌아오는 대선국면에서 유력 후보별로 교육공약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련의 활동이 이제는 친숙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쳐 선택을 받은 후보자의 공약은 비록 추후 국민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임기 동안 교육정책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학계에서도 대선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학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든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든 좋은 교육의 실현을 갈망하며, 선거과정이 교육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선거는 팽팽하게 맞선 논란을 일거에 정리하기도 하고, 해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해 오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무상급식 전면 실행,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확충, 고교교육 무상교육제도 조기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용 교육공약의 특성상 우려할 만한 점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후보 진영의 연합적인 대결구도 속에서 내놓은 공약의 기조는 의당 첨예하게 갈려 장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회원들도 각기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교육을 보는 ‘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향점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여기에 ‘정치적 문제’에 매몰되고, 특정 교육문제 대응에 치우쳐서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교육공약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치집단과의 협업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민주적 집단 과정이라는 수단은 필경 비민주적 목적을 낳는 데 쉽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집단 과정은 오롯이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질 때, 모종의 교육적인 목적 달성에 유용하다. 정치적 집단 과정은 민주적 통제수단이므로 집단 과정에 의해 설정한 모든 목적이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II

이번 대선의 화두는 ‘공정’과 ‘민생’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로 출발해 보자.

경향신문 임아영·박은하(2019) 기자는 ‘어쩌다 자식은 부모에게 행복 아닌 “짐”이 되었나’라는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개인이 육아책임을 떠맡으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돈을 쏟아붓는다고 표현하였다. 부모의 짐 중에 사교육도 빠질 수 없다. 신한은행이 2018년 3월 만 20~64세 금융거래 소비자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인용한 결과를 보면 자녀 1명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드는 교육비는 총 8,552만원이다. 사교육비가 6,427만원으로 75.1%를 차지했다. 대학등록금까지 고려하면 교육비로만 1억원이 든다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 가구의 자녀 1인당 총교육비는 1억4,484만원으로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교육비 4,766만원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식을 세상에 초대한 의무감으로 자녀의 육아와 사교육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짐의 크기도 무게도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 짐을 누가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가?

중앙일보 추인영(2021) 기자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의 제목은 “서울대서 뭘 배웠나 모르겠다” 세계대회 우승한 여성의 일침이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직후 행정고시(42회·재경직) 차석까지 했는데 실전에선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꼈단다. 한국에선 내로라하는 우등생이었지만, 그는 사실 한국 교육에 회의적이다. 막상 올라선 국제무대에 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혔던 경험 때문이다. 공무원 2년 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장에서 “(역량이 부족한) 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많이 알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결심했다. “유학생들은 처절했다”고 한다. “이른바 ‘좋은 교육’을 한다는 서구권에선 늘 건설적으로 비판하기를 훈련했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았다”면서다. 그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대에 왔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남은 게 뭘지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했다.

덧글이 많은 인터뷰 기사였다. 주요 덧글의 요지는 상상에 맡긴다. 그러도 치열한 교육경쟁의 승자였지만 불만족스러운 우리 교육의 허점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뼈아프게 고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경쟁할 것을 경쟁하고 있는가?

1) 경향신문. 2019. 1.20.

2) 중앙일보. 2021.11.19.

III

공정과 민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상식적인 비유(Gowin, 1981: 175-178)를 사용하여 “평등(equality)”이란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주의 비유(contest analogy)이다. 경쟁을 전제로 게임과 규칙에 주목한다. 달리기 경주에서 모든 참가자들은 똑같은 출발점에서 같은 시간에 출발해야 한다. ‘부정과 반칙’은 엄격하게 통제한다. 어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릴 것이다. 결과의 불평등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주의 비유로서 평등은 똑같은 단위, 똑같은 측정, 똑같은 시간, 똑같은 대우 등 ‘동등성의 개념’에 의존한다.

둘째, 병원의 비유(hospital analogy)이다.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 개개인의 질환을 진단하고, 이에 맞춰 처방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치료해준다. 개개인을 구분하여 치료하며, 모두 똑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똑같은 나이까지 살아간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보충해야 할 불평등과 약점이 있다. 학교는 실제로 병원에서 질환을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보충해 준다. 이 경우의 평등은 공평성(fairness)을 의미한다. 여기서 평등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은 학습기회의 제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학습 기회가 가능하도록 개별화한다. 이러한 비유에서의 교육평가는 동일한 측정 단위로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출발점과 그의 현재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셋째, 축제의 비유(feast analogy)이다. 어두운 병원의 비유에서 이제 밝은 축제의 비유로 논의의 방향을 옮겨보자.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한 개인으로서 초대를 받는다. 각 개인은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경쟁을 유발하거나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평등은 개성(individuality), 독특성(uniqueness)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저마다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비교를 하지 않는다. 교육, 즉 축제는 흥미, 재능, 과거 경험, 열망, 기대 등의 복합적인 함수이다. 이 비유에서 개인은 마치 새로운 춤의 스텝을 실제로 밟기 전에 그의 춤 솜씨를 스스로 원할 경우에만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경험의 토대로서 그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를 평가한다.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마치 축제가 한 공동체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쁨을 제공하는 행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비유는 네 번째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지극히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경쟁의 입장에서 동등성(sameness)의 의미와 경주자의 평등에 대한 비유가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공평성(fairness)과 차별적인 처치의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개별성의 의미와 축제의 비유가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IV

교육의 실제에서 여러 평등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교육의 과정은 각자에게 의미 있게, 교육의 혜택은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모종의 교육사태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충분한 힘을 행사해야 한다. 공정과 민생 차원에서 모두의 성공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려면 우선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사적 영역을 줄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공적인 영역을 넓혀야 한다. 대학입학전형 정책을 포함한 고등교육체제의 개편,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초·중학교 통합학교 제도 도입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예시적으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입학전형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임연기, 2021: 70-72 참조). 대학입학전형 정책은 현재와 같이 대학을 정점에 두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등의 하급학교가 따라가게 하는 ‘하구형’에서, 초등학교 위에 중등교육을 구축하고, 이 바탕 위에 대학을 두는 ‘상구형’으로 전환한다. 대학입학전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학에서 성공적인 수학을 위한 것보다 우위에 둔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전형자료의 활용에 제한한다. 전형자료의 생산은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와 국가관리 표준화 시험결과에 국한한다. 대학 본고사 폐지와 맥을 같이하여 대학 자체의 논술고사, 심층 면접, 특기자 전형을 일체 정지한다(물론 예체능 실기고사는 예외로 한다).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고사와 심층면접은 고등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 본고사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대학의 사명에 따라 학생선발에 필요한 기초적 전형자료를 제공하고, 전형자료 활용방법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입학수학능력 시험의 성격을 재정립한다. 정부는 역량을 결집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험과목을 언어, 수학,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 필수과목과, 고교 학점제 적용에 따른 선택 교과과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부합하면서 고등정신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논술이 아니라 SAT 에세이 타입의 서술형 시험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한다. 채점은 그 결과를 활용할 대학에게 맡길 수도 있다. 대학, 전공에 따라 대학수학능력 시험결과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리적 으로 불이익을 겪는 경우, 이에 따른 격차를 바로 잡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등교육체제의 분화와 다양화를 촉발한다. 대학체제의 급격한 양적 성장에 따라 대학의 보편화를 이루었으나 대학체제의 분화와 다양화 등 질적 차원에서 변화가 따르지 못하였다.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획일적인 발전모델을 추구한 결과 대학의 서열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대학의 서열화는 대학입시 경쟁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류지성 외(2006)는 한국의 대학은 미국, 일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석·박사, 종합대학에 치우쳐서 다양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획일적인 단일 발전모형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고객만족도

가 저하되고, 생존자제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한국 대학은 공급초과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시장의 힘에 의해 학생충원 및 자원배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이 자체의 경쟁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환경에 따라 차별적인 특성화 전략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의 분화와 다양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는 하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의 설립 목적, 교육여건,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중심, 교육중심 등의 유형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정원 축소, 대학원 비중 확대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평가 특히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 연계 각종 평가 등의 정부개입이 오히려 승자독식의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혁신 중심 고교교육 내실화 조건을 정비한다.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는 관료적 명령체계를 바탕으로 한 하향식 개혁시도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의 자기 혁신전략과 학교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한다. 단위학교의 교장과 교사에게 활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돕고 협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 가능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흔히 대학입학전형 정책 때문에 고교 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하면서 대학입학전형 정책을 활용하여 고교 교육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한다. 발상을 전환하여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대학입학전형에 흔들림 없이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자체적으로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 비교과 활동 역시 대학입학전형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9년제 선택적 초·중 통합학교 제도를 도입한다(임연기 외 2020 참조).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해방 이후 정착해온 6-3-3 학제 운영의 유연화 차원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급 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9년 동안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일관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통합학교 제도를 도입한다. 통합학교 제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분리 학제와 병행하여 존립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초·중 통합학교 도입은 학제 유연화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농촌지역과 일부 도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학생수 급감추세에 대응하여 학교체제의 재정비를 바탕으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학교는 학생들에게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중학교 단계로의 순차적 이행을 돕고, 거주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에게 매력적일 수도 있다.

다섯째, 초·중학교 단계에서의 방과후학교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과 함께 정규 교과과정의 보충이나 심화,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경험, 특기와 적성 개발은 물론 각종 취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과는 달리 일체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평가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비를 부담하는 활동이다.

방과후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르면 취학전 돌봄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에 대한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 방과후학교의 다른 기능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침체에 빠져 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의 반값으로 사교육의 수준을 능가하여 모두가 참여를 원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현행 학교운영체제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참고문헌

- 류지성, 박용규, 이갑성, 조희재, 배성오(2006). 대학혁신과 경쟁력, 삼성경제연구소.
임연기, 박삼철, 김병찬, 강충서, 히고(2020). 세계의 통합학교. 서울: 성안당.
임연기(2021). 딜레마와 교육정책. 서울: 학지사.
Gowin, D. Bob(1981). Educating.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임연기 역(2005). 교육학의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 시론 |

[COVID-19 이후 학교가 나아갈 길¹⁾]

김혜영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 연구위원

2019년 끝 무렵 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의 여파로 교육계는 ‘3無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3無’란 학생 없는 학교, 교실 없는 수업, 돌봄 없는 가정을 뜻한다.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되면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정에 홀로 남게 된 아이들은 학습과 생활면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필자는 COVID-19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교육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학교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적 통찰이 부족한 탓에 홀로 오롯한 생각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에 기대어 그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2021년 4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학교 재구조화 방향 탐색: COVID-19에 따른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²⁾」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글은 당시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를 토대로 COVID-19 이후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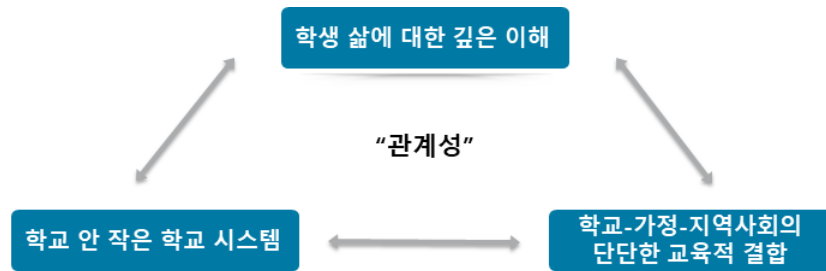
한편, 학교 재구조화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새롭게하기’나 ‘고쳐하기’와 같은 차원의 교육적 변화를 뛰어넘어, ‘틀 다시 짜기’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둔다(양승실, 1999). 일반적으로 학교 재구조화를 설명하는 주요 영역은 1) 교수-학습의 변화 및 교사 전문성 신장, 2) 업무구조 등 학교조직 변화, 3) 지역사회 관계 등 거버넌스 변화의 세 부분이다. COVID-19 사태로 드러난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확인하고 새롭게 대두된 교육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에 대한 땀실식 처방이 아닌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이론적 틀로 학교 재구조화 논의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까닭이다.

COVID-19에 따른 교사 경험을 토대로 교육적 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학교 재구조화의 방향을 모색한 결과, 세 영역으로 ‘학생 삶에 대한 깊은 이해’,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단단한 교육적 결합’을 도출하였으며, 세 영역을 관통하는 학교교육의 핵심가치이자 회복해야 할 가치로관계성’을 제안하였다(그림 1 참고). 우리는

1) 김혜영(2021).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학교 재구조화 방향 탐색: COVID-19에 따른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제45호.

2) 김혜영(2021).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한 학교 재구조화 방향 탐색: COVID-19에 따른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제45호.

COVID-19로 인하여 학교 내·외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험했다. 학생, 동료교사, 학교관리자, 가정, 정부 및 지역사회 간 상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COVID-19 이후 학교가 나아갈 길

■ 학생 삶에 대한 깊은 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학생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 집중되어야 한다. 강미애와 남성욱(2020: 109)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란 집단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활동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속성을 갖는다. 교육은 한 명 한 명의 개별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에 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변화를 복돋아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조용환, 1997). 뉴노멀 시대, 교사의 역할은 “수업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사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³⁾. 최성광과 최미정(2021) 역시, 코로나19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형식이 지식교육과 학습 중심에서 학생의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교육자는 학습자와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즉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 낸 그 조건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알고자 노력하는 일은 교육적 실천을 행하려는 교육자에게 부과된 일종의 과제이다(Freire, P., 1998: 133).

학교교육의 방향이 학생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 주도성’과 ‘교사 교육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사들은 원격수업 상황에서 아동 중심적 사고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안서현, 김준, 이정표, 2021: 1,397), 학습동기를 자극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미애, 남성욱, 2020: 104).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학습에 대한 수업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기본 생활습관과 학습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강미애, 남성욱, 2020: 101). 교사가 개별 학생의 학습 주도성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도성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서 학생의 특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까닭에, 학생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3) [교육이 미래다] 웹툰 작가로, 유튜브로,,, 비대면 시대 ‘쌤’들의 무한변신. 중앙일보(2021.4.28. <https://news.joins.com/article/24045396>).

제고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OVID-19라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학생과의 상담이 일상화되면서 학생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한 교사 경험은 감정노동과 교사 소진의 부적 효과도 발생시켰지만(정바울, 장유정, 2020), 학교 밖 학생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학생 이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안서현, 김준, 이정표, 2021).

COVID-19 상황에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교사 교육과정의 실천 경험 역시 교사들이 개별 학생을 한층 더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 중심의 수업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 설계와 수행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다(안서현, 김준, 이정표, 2021). 2020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교사들은 원격수업 초기에는 플랫폼에 제공할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으로 초점을 이동하였고, 전달 방법에 앞서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학생을 중점에 두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지은, 2020: 195). 교사가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학년의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2020: 190). 교사들은 학교교육에서 교사 교육과정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사 교육과정 실천의 핵심적인 목적은 ‘학생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학교 안 작은 학교 시스템

교육계 내·외부에서는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이후에도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과 함께 유사 위기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지속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구조적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 상황에서 학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한 학교 조직 재구조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었다.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이란 교육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부서별, 학년별, 교과별 등 작은 학교의 자율권이 발휘될 수 있는 학교 조직을 의미한다.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무구조의 유연성’과 ‘학년 중심 운영’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태화, 김갑성, 하동엽(2020)의 연구에서는 ‘위기상황 속에서 학교장이 발휘한 리더십’의 하위범주로 ‘과감하게 비전 결정하기, 선제적 교수-학습 환경기반 마련하기, 디테일은 존중하기, 조력자로서 기다리기, 경청과 소통으로 교육가치 공유하기’ 등을 밝혔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학급과 교과, 학년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학교가 추구해야 할 수업 방식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고(과감하게 비전 결정하기), 교과별, 학년별, 학급별 특색에 맞는 세부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는 교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마련(디테일은 존중하기, 조력자로서 기다리기)되었다는 점이다(이태화, 김갑성, 하동엽, 2020: 387).

업무구조의 유연성은 최종 결정권자와 실무자 간 다이렉트 결재방식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추구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학교 조직 형태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담당자-부장교사-

교감-교장'의 네 단계 결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태화, 김갑성, 하동엽(2020: 387)의 사례는 불필요한 결재과정을 축소하고 학교장과 부장교사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적 행정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업무구조의 유연성은 COVID-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물론 일상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OVID-19 상황에서 교사가 경험한 '학년 및 부서 중심 학교 운영'은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또 다른 기제이다.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에 적응하고,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동학년 중심의 협의, 교사전문적학습공동체, 부장교사 역할 강화' 등 학년 중심 운영의 힘이다(김혜진, 2020: 625; 강미애, 남성욱, 2020: 107). 학년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년의 대표이자, 학년에 소속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부장교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강미애, 남성욱, 2020: 107). 기존의 업무 외에 새롭게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장교사들은 교사 간 의사결정의 조정자이자, 교육활동의 책임자로서 부서와 학년을 이끌어가는 작은 학교의 '리더'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단단한 교육적 결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거버넌스 영역에서 학교 재구조화의 방향은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단단한 교육적 결합'의 추구이다. 학생이 사라진 학교, 교실이 사라진 수업, 돌봄이 사라진 가정에서 더 이상 학교가 교육적 책임을 맡는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 교실 밖, 학교 밖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함께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 공동의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책임'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며, 교육적 책임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다.

전술한 세 주체의 단단한 교육적 결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자치'와 '모두의 돌봄'이 실현되어야 한다. COVID-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은 교사 패싱 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 교육부의 하향식 결정으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주체성 상실은 물론 무력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다(최형미, 이동국, 2020; 신현석, 김한솔, 안희진, 2020; 최성광, 최미정, 2021).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교수-학습의 도입, 학교 변화, 정책실행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은 교사의 자발성과 헌신성이다. 최성광과 최미정(2021)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COVID-19를 공동으로 대응하며 경험한 가장 큰 성과는 상부의 지침 없이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며, 위기속에서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교육의 주체로 그 역할을 다했다는 데 있다. 학교자치는 교육의 변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가 핵심적인 주체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토대이자 교사의 사기와 열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킨다.

COVID-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확산되면서, 이전까지 학교와 교실에 머무르던 교사의 수업과 직무가 학부모와 학교 조직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교사는 이러한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여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의 증거화로 인해 자기 검열이 강화되기도 한다(정바울, 장유정, 2020). 열린 수업의 구조에서 교사는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김혜진, 2020). 이로 인해 교사들은 비대면 상황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저학년 학생을 담당할수록 원활한 수업과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강미애, 남성욱, 2020). 결국 원격수업과 같은 유사한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결손을 확인하거나 학습 태도와 생활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돌봄, 태도의 돌봄, 정서의 돌봄’과 같은 학생 돌봄이 더 이상 교사와 학교만의 기능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모두의 돌봄’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는 학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구성원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의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최성광, 최미정, 2021: 184), 지역사회는 학교와 교사의 개입이 불가능한 영역인 가정 내 혹은 지역 내 온라인 수업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경미선, 진용성, 김갑성, 2021: 237). 학교자치 구현과 모두의 돌봄이라는 마인드 형성을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단단한 교육적 결합을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교사가 마주한 다양한 경험을 근거로 학교 재구조화 이론에 비추어 COVID-19 이후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였다. 예측불가능한 미래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의 본래적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 삶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학교 안 작은 학교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가정-지역사회와 단단한 교육적 결합을 유지·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전술한 논의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래학교, 미래교육, 나아가 교육대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해답일수는 없으나 적어도 고민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참고문헌

- 강미애, 남성욱(2020). 코로나 19로 인한 쌍방향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세종시 초등학교 교사들과 FGI 질적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89-116.
- 경미선, 진용성, 김갑성(2021). COVID-19에 대응하는 초등 교사들의 원격수업 경험과 의미. *교원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7(1), 221-243.
- 김혜진(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13-639.
- 박휴용(2021).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포스트휴먼 학습론. 진북: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신현석, 김한솔, 안희진(2020).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Stone의 사실 관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8(5), 1-28.
- 안서현, 김준, 이정표(2021). 초등교사의 원격수업 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1385-1410.
- 안우환(2003). 공교육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총체적 가정·학교(Home-School) 협력체제 모형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1(2), 109-128.

- 양승실(1999). 학교 재구조화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논의. *교육정치학연구*. 155-184.
- 이지은(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풀어내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3), 184-201.
- 이태화, 김갑성, 하동엽(2020). 위기상황에서 학교장 리더십 특성 연구. *교육문화연구*. 26(5), 377-402.
- 정바울, 장유정(2020). COVID-19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부상과 교사 직무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7(4), 125-144.
- 최성광, 최미정(2021). 코로나 19에 대응하며 현장교사들이 경험한 'K-교육'에 대한 FGI 연구.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5(2), 179-189.
- 최형미, 이동국(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 Freire, Paulo. (1998). *Teachers as Cultural Workers : Letters to Those Who Dare Teach*. 김한별 역(2020). *플레이리의 교사론: 기꺼이 가르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 오트르 랩.

| 시론 |



[어느 교육행정 연구자의 부끄러운 실존적 고백]

김 병 찬 | 경희대학교 교수

저는 1991년에 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그 해에 한국교육행정학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 2021년은 제가 교육행정학 공부를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이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으로 활동한지도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나 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10년차, 20년차 때에는 그 기간이 주는 의미를 성찰해 볼 여유도 없이 일상에 쫓기며 정신없이 휩 지나간 것 같은데, 30년차는 그 기간이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해 왔으며,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교육행정학 공부와 연구는 그 성실성과 성과를 떠나 30년 동안 제 삶의 중심축이었고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과학계 표현하면 교육행정학 공부와 연구는 제 젊은 시절을 바친 제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저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교육행정학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였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30년 이정표 위에 서 있는 저는 상당히 공허한 마음이 앞섭니다. 공허함은 누가 제게 주입시켜 준 것도 아닌데, 30년 반환점 위에서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입니다. 저는 이 공허함을 애써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허한 마음도 제 삶의 결과이며 우리 학문공동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 왔던 저의 지금의 이 느낌, 이 생각 또한 우리 학문공동체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부끄럽지만 30년 반환점에서 드는 이 느낌과 생각을 학회 회원님들과 공유해 보고자 용기를 내었습니다. 물론 교육행정학회에 대하여 저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해 왔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모습은 학회 회원님들의 무수히 다양한 경험과 모습 중 단지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다만 이 모습도 우리 학회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 학문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겠다 싶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의 교육행정학 연구 30년 반환점에서 제 스스로에게 가장 크게 들었던 마음 아픈 질문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교육행정 질적연구 전문가인가?’, ‘나는 실패한 학자인가?’

1. 나는 교육행정 질적연구 전문가인가?

1995년 석사학위 논문을 질적연구방법으로 시작하면서 질적연구자가 된 이래 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제가 질적 연구를 잘 안다고, 혹은 제가 질적연구를 잘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질적연구하는 것이 두렵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올바른 질적연구 방식인지에 대해 늘 회의하고 경계합니다. 저는 아직도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질적연구를 배워 가면서 조심스럽게 질적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질적연구 ‘학습자’ 일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확한 정체(identity)입니다.

질적연구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적연구를 완벽하게 다 배운 후에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면, 아마 저는 평생 질적연구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연구에 대해 제가 배우고 안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범위 내에서 질적연구를 수행한 불완전한 연구라는 것을 늘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비단 저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적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질적연구를 잘 알고 있고, 질적연구를 잘 하고 있다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행정학계에서는 ‘김병찬이 질적연구를 잘 하는 것처럼’, ‘김병찬이 질적연구를 잘 아는 것처럼’ 보는 일부의 시선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시선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잘 못된 시선입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질적연구를 겨우겨우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새 저에게 ‘질적연구 전문가’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듯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질적연구가 척박한 한국 교육행정학계의 풍토에서 생긴 ‘년센스’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5년 넘게 양적연구를 못하니 질적연구만 해 왔고, 대략 40여 편이 넘는 질적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온 제 겉모습이 사람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킨 듯합니다. 교육행정학계 내에서 질적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학자나 연구자가 드문 비정상적인 풍토가 만들어 낸 착시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질적연구 전문가로 보는 시선이 매우 무섭고 질적연구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늘 고통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질적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매 순간순간이 매우 두렵습니다. 저의 정확한 정체(identity)는 질적연구를 잘 알고 싶고 잘 하고 싶은 아직도 ‘미숙한 질적연구 학습자’ 일 뿐입니다.

2. 나는 실패한 학자인가?

학회 회원으로 30년 시점을 지나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뼈아픈 질문이 ‘나는 실패한 학자인가?’ 입니다. 저는 학회활동도 열심히 했고, 논문도 많이 썼으며, 학교에서도 교육행정전공을 맡아 꽤 많은 석사, 박사를 배출해 왔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연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잘 살아왔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괜찮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제가 의도하거나 의식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 속에 ‘학자로서는 어떻게 살았느냐’는 질문이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자꾸 되뇌여지면서 ‘나는 실패한 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굳어져 갔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에 대학에 오고 2010년 핀란드로 안식년을 가기까지 그야말로 논문 쓰기에 혈안이 되어 논문을 만들어 내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안식년 이후 2018년까지는 교육부, 교육청, 개발원 그리고 이러저러한 정책연구에 정신없이 다니며 시간이 흘렀고, 2018년 이후에는 대학에서 보직하느라 기며 지냈습니다. 순수하게 연구에만 몰두하였던 시간은 대학에 들어 온 초창기 6-7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정책연구에, 학회 일에, 학내외의 각종 보직과 사업에, 연구 반, 일(사업) 반의 시간을 보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자로서의 전문성과 깊이는 더 해지지 못했고,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가는 상식적인 직장인 정도의 역할만 수행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제가 지금 쓴 논문이나 10년, 혹은 20년 전에 쓴 논문이나 질적인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논문은 20년 전에 쓴 것이 훨씬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의 이론 형성이나 개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공부나 연구마저도 제대로 축적되지 못한 부끄러운 제 모습이 자꾸 드러나 보였습니다. 또한 제 연구 분야인 교육현장의 학교 및 교사들의 변화나 개선에도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학자인가, 직장인인가가 혼돈이 되었고, 월급 받고 맡은 일 해 내는 기능적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 왔지만, 학문적 성장이나 학문적 성취를 내는 일에는 거의 성과가 없는 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회 3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학자’라는 낙인을 저 자신에게서 거둬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위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 왔기 때문입니다.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하여 논문 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학회 일에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부지런히 참여해 왔으며, 정책연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학생들 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학자로서는 실패한 것 같은 이 참담한 느낌이 너무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저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온 것 같은데, 실패한 듯한 이 느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지 못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려고 했던 제게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분들 역시 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들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학자로서의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론 형성이나 개발, 탁월한 연구 결과물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우리의 풍토, 넓게는 한국의 교육학계, 직접적으로는 한국의 교육행정학계의 풍토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1) 축적이 없고 길이 없는 학계

저는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열심히 뛰면 제 연구와 논문들이 어딘가에 축적이 되고 우리 교육행정학계를 풍부하게 하고 저와 우리 학계의 성장을 이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교육행정학계의 학자라는 소명의식도 가지고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학계에 들어와 30여 년이 지나고 정년을 10년 남겨 둔 이 시점에서 제 믿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믿었던 것이 허상이었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심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내 연구와 논문들이 어딘가에 축적이 되고 우리 교육행정학계를 풍부하게 하고 나와 우리 학계의 성장을 이뤄간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연구와 논문들은 축적이 되지도 성장하지도 못했으며, 나아가 우리 교육행정학계 학자들의 연구나 논문도 대체로 축적되지도 성장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학문공동체로서 학문생태계로서의 ‘살아 있음’ 이, ‘생명력이 있음’ 이, ‘성장하고 있음’ 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교육행정학계는 ‘학문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이 없는’ ‘모래알들의 집합체’, ‘모래성을 쌓고 있는 학자라는 사람들 집단’ 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모래성을 쌓는 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이어갈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 보면, 처음에는 매우 그럴듯하게 길도 만들고, 담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듭니다. 하지만 파도에 한 번 쓸려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에 또 다른 모래성을 만듭니다. 길도 남지 않고 건물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그때뿐인 작업이 모래성을 쌓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행정학계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계 차원에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여 새로운 주제, 의미 있는 주제들을 발굴하여 학술대회를 열고 다양하게 발표도 하고 열띤 토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1년짜리 1회성 작업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주제를 기를 쓰고 발굴하여 또 학술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무엇을 하였는지,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해의 학술대회 한 번(봄, 가을, 연차대회)에 몰두합니다. 그리고는 다 잊고 내년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는 일과 비슷합니다. 멋있게 쌓아 놓은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모래성을 쌓는 일을 반복하듯 우리 교육행정학계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축적도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해 우리가 학술대회를 통해 다루는 주제들 중에 결코 중요하지 않는 주제는 없습니다. 모두 이론적, 실제적 탐구가 필요한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주제도 학술대회 한 번으로 연구와 탐구가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집중적으로 최소한 수 년, 또는 수 십 년을 넘게 탐구하고 연구해야 그나마 기반이 닦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주제도, 정말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한 주제도 학술대회 끝나고 나면 대체로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합니다. 그것도 대체로 혼자서.....

그러니 학술대회도 연구도 길이 없습니다. 길이란 오랫동안 함께 걸어 만들어 지는 것인데,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걷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가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대체로 혼자 다닙니다. 길은 여럿이 함께 오래 다녀야 길이 되는데, 우리 교육행정학계는 함께 가는 길도 없고 오래 걷는 길도 없습니다. 이는 모래성 쌓는 일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우리 교육행정학계가 생산성도 성장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 백권의 책이 출간되고 수 천편의 논문이 발간되면 생산성이 높은 것인가요? 길이 있고 성장이 있는 학계라면 수 백권의 책과 수 천편의 논문은 엄청난 자양분이 되어 그야말로 살아 있는, 활성화된, 제 역할을 하는 성장하는 학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축적도 되지 않고 길도 없는 학계에서의 수 백, 수 천의 책과 논문은 모래성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어느 학자든 개인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 학문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학자로서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떨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 잘 못이 가장 크겠지만, 제가 발 디디고 있는 우리 한국교

육행정학계의 이러한 풍토도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행정학계에 막 들어서는 신진학자들이나 교육행정을 배워 보겠다고 석·박사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 기반이 허약한 연구 풍토

모래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래성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견고하지도 못하고 높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도 비슷한 면을 봅니다. 교육행정학계의 기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교육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육행정학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과 이론, 연구방법에 관한 공부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육기반이 너무 허약합니다.

우선 연구방법론 분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방법이 있지만 대체로 연구방법의 두 축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입니다.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방법이든 양적연구방법이든 연구방법에 대해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질적연구를 수행해 왔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질적연구에 대해 철저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님도 질적연구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주시지 않았고 우리 교육행정학계 어느 교수님으로부터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타전공에 개설된 질적연구방법 과목을 수강하고 어깨너머로 개인적으로 독학하듯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적연구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질적연구를 배워야 하는 학습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전공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 질적연구방법이든 양적연구방법이든 연구방법에 대해 제대로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학생들을 내보내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요? 교육행정전공에서 질적연구방법이든 양적연구방법이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제 눈에는 그러한 대학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로 연구방법에 대해 철저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교육행정전공의 현실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연구방법의 부실은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논문 심사과정에서 여실히 확인이 됩니다. 많은 경우 심사자들 역시 연구방법에 대해 잘 모른 상태에서 심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구방법이 부실한 상황에서 좋은 연구나 좋은 논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기본 중의 기본이 연구방법인데, 이 핵심이 부실하다는 것은 연구나 논문의 질에,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연구 풍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학계는 학문적으로 높이 쌓아 올라가지도 못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하든 실천을 하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기초 공부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행정전공자로서 이러한 기초공부가 탄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방법론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전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전공을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교육조직, 교육정책, 인사행정, 교육재정 등 교육행정부야 기초과목들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저는 1991-2000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한 대학의 교육행

정전공에서 위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업들은 세미나식 수업이었습니다. 각 챕터를 학생들이 준비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 형태, 그리고 교수가 마지막에 코멘트 하고 끝나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런 수업방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런 수업방식에서는 기초도 제대로 쌓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 적용에 대해 논하는 수업 형식이 됩니다. 각 과목들의 기본 원리와 이론들에 대해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 적용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 같지만, 배움이 얕습니다. 기초가 탄탄히 닦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 과목을 배우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를 하고 논문을 씁니다. 따라서 대부분 논문 형식은 갖추지만 깊이가 없고 부실합니다. 논문을 통한 진정한 이론의 탐구나 개발도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졸업을 하고 교수도 되고 연구원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카니즘은 이들이 있는 곳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제 모습이 정확하게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수, 연구자의 흉내를 내는 모습은 있으나 교수, 연구자의 능력은 없습니다. 간혹 학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일부 교수나 연구자들은 그가 국내에서 공부를 했던 유학을 다녀왔든 거의 공통적으로 그들이 공부한 대학에서 기초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사업위주의 학계 풍토

연구의 축적도 길도 만들어지지 않은 풍토, 공부의 기초와 기반이 허약한 풍토 등은 제가 교육행정학계에 들어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억울함의 변명거리들입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변명거리를 하나 더 들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사업위주의 풍토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하는 과업은 연구 20%, 사업 8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회도 학술대회 사업에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무슨 학문적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가 어떻게 확산, 심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회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으며, 어떤 주제로 열렸다 정도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전형적인 사업적 접근입니다. 즉 학술대회라는 괜찮은 이벤트 사업을 하나 잘 치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을 기반으로 하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연구들도 저는 그 성격이 연구보다는 사업적이라고 봅니다. 현장에 대한 밀도 있는 접근이 가능한 정책연구를 통해 이론적 담론이나 논의거리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좀 심하게 말하면 학문적 논의의 대표적인 장이어야 할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도 다분히 사업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지 발행도 업적쌓기나 승진을 위한 공인된 논문을 만들어 내는 사업의 장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지를 통해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받고 게재되는 논문 사업 프로세스만 반복될 뿐이지 학술지가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거나 공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를 통한 학문적 흐름도, 학문적 길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문적 체계도 흐름도 없이 온갖 논문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어떠한 학문적 담론도, 발전도 이뤄내지 못하는 학술지를 사업적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이와 같이 전반적인 풍토가 연구보다는 사업에 치우쳐 있는 우리 교육행정학계는 진정성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며 학문적 길을 닦아 나가는 연구자들이 자라고 성장하기에는 너무 척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사업을 잘하는 연구자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는 풍토 속에서 제대로 연구해 보려고 하는 연구자는 소외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스스

로 생각하기에 교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교육행정학계 풍토에서 적당히 연구하고 적당히 사업하면서 연구하는 척, 사업하는 척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눈에는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업에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교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기보다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학자인 척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학자로서 실패한 삶을 산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기는 하지만, 연구보다는 사업에 치우쳐 있는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풍토도 일조했다는 변명을 다시 하고 싶은 것입니다.

4) 학문적 식민성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풍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풍토의 학문적 식민성을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첨단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시대착오적인 식민성에 대해 이야기하느냐고 누군가 질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행정학계 풍토의 식민성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특성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교육정책, 교육제도, 장학, 고등교육, 교육재정, 교원교육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외국의 이론과 외국 학자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배웁니다. 공부를 하려면, 그것도 공부를 잘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외국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합니다. 외국 학자들의 논의를 많이 알고 그 바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할수록 그 사람은 우수한 학자요 우수한 연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국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의 논의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의 논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어디까지나 주변적입니다. 외국의 학자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하지 한국의 학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대부분 큰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던 외국에서 공부하던 주요 관심의 대상은 외국의 학자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이론을 펼쳤느냐입니다. 이렇게 외국의 논의와 이론을 잔뜩 배우고 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적용, 응용하자라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물론 이런 접근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맨땅에 헤딩하는 접근보다는 외국의 접근을 적용, 응용하는 것은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심마저도 일부 학자나 연구자들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도 없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정책연구도 하고 학술지 논문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그 어떤 논의나 이론도 그 뿌리는 그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외국 학자들의 논의나 이론을 보면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미국이나 자기들 나라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이론과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메인 텍스트 삼아서 부지런히 따라가며 배우려 합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우리 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담론 형성도, 우리의 교육행정 이론 도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큰 문제는 외국에서의 교육행정 논의나 이론의 발전, 확산 속도가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이 배워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외국 것을 배워 나가는데 허덕거리며 아가는 것을 반복하며 지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행정을 우리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보는 일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국에서 교육행정학자로서 실패의 저의 변명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식민성을 고착화시키는 두 가지 사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는 번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내 우수한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의 왕성한 학술활동 중의 하나는 괜찮은 외국 학술서적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발전된 사례와 이론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그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우수한 대학의 교수들, 국내 우수한 연구자들이라면 외국의 우수한 서적을 번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역하고 싶어 하는 외국 책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 문제와 이론을 다룬 책을 저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번역서가 교재가 되어 우리 학생들은 또 다시 외국의 이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교육을 보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외국 서적은 대부분 우리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른 그들 나라의 교육 이야기이고 그들 풍토에서 만들어진 이론과 논의들입니다.

또 하나의 학문적 식민성 사례는 영어논문 선호 현상입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영어논문 쓰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영어논문을 쓰고 있으며, 교육학회나 교육행정학회에서도 영문 학술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왜 한국의 교육행정학자로서 영어논문을 써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영어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료 교수님도 우수한 외국 학술지에 영어논문을 꽤 실었습니다. 우리 학자의 위상을 드높인 경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동료 교수님이 쓴 한국 학술지 논문은 거의 다 읽어 보았고 많이 배웠고 또 인용도 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수님이 쓴 영어논문은 단 한 편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전공 학생들 중에서도 그 교수님의 영어논문을 제대로 읽어 보았다는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단지 그 교수님 사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넓혀서 교육행정학계나 교육학계에서 한국 학자들이 쓴 영어논문을 역시 제대로 읽어보았다는 연구자나 학생들을 거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논문을 쓴 당사자 본인과 외국 학술지 심사위원만 읽는 영어논문, 국내 연구자나 학생들은 거의 읽지 않는 영어논문을 왜 써야 하고 왜 권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왜 쓰는 것일까요? 저명한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어 위상을 높이는 것도 물론 목적이 되겠지만, 논문을 쓰는 이유는 현상에 대한 엄격한 탐구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학문공동체와 실천공동체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 관점을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유’ 되는 것은 논문의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공유되지 못하는 영어논문을 왜 써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학문적 식민성으로 봅니다. 우리 스스로 논문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이 실림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식민성의 한 모습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외국의 논문과 이론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우리 것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가요? 해방 이후를 시작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의 8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행정학 이론과 논의를 우리 것으로 승화, 발전시키기는 고사하고 외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외국 것을 쫓아가는 것마저도 힘겨워 하고 있는 것

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한국 고유의 교육행정학이론을 개발하고 형성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교육행정학계 식민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의 논의나 이론, 학자에 대한 의존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교육 현상과 교육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감각과 역량이 무너지고 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외국의 이론, 논의, 학자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 교육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 ‘기능적인 학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올까봐 심히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저는 학자로서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다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3. 나가며

교육행정학 공부와 연구 30년 시점에서 되돌아 본 저의 모습은 분명 ‘실패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실패가 저만의 잘못만이 아니라 제가 몸담아 왔던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풍토와 문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자로서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서 ‘교수노릇’이나 하면서 정년까지 남은 10년을 ‘조용하게’ 보내는 것도 저의 선택지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또는 다시 용기를 내어 제 계층과 능력을 질타하면서 제대로 된 학자가 되기 위한 길을 찾아 고독한 싸움을 해 나가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혹 더 크게 용기를 내어 만약 지금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문공동체의 문제라면 우리 교육행정학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머리에서는 더 크게 용기를 내어 동료 학자 및 연구자들과 힘을 모아 학문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도전과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몸은 교수 노릇이나 하면서 편하게 조용히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30년 반환점에 서 있는 저의 심각한 실존적 고백이요 고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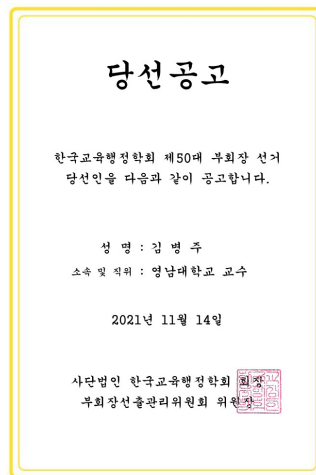
• 2021년 학회주요소식 •

1. 제 49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eas.or.kr E-Mail: keas1967@dam.net
학회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eduforall0116@gmail.com)
간사	성명	총무간사: 장우천(충북대학교)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 010-7522-8217
		총무부간사: 김용준(충북대학교)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관련 업무 - keas1967@daum.net , 010-2430-1532
		편집간사: 김범주(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 010-8593-8900
		편집부간사: 김보경(경인교육대학교)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keas1967@nate.com , 010-5573-8661

2. 제 50대 부회장 선거 결과

2021년도 제50대 부회장 선거 결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김병주 교수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김병주 교수님께서 2022년 제50대 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후 2023년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끌실 예정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개편

2022년 1월 새로운 한국교육행정학회의 홈페이지(<http://keas1967.com>)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dbpiaone.com/keas/index.do>)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대거 개선하였으며, 인터페이스와 외관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가입 회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를 입력하시어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 현판식 진행

2021년 12월 25일(토)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실(서울 마포구 독막로 331 (도화동) 마스터즈타워빌 9층 902호)에서 현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새롭게 마련한 학회 사무실 개소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윤정일 법인 이사장님, 강인수 이사님, 고전 학회장님, 김이경 이사님, 김혜숙 전 회장님, 박상완 이사님, 박선행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학회 사무국은 학회 회원님들께서 사무실을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2021년 연차학술대회 개최

- 가. 주제: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 나. 일시: 2021년 11월 27일 (토)
- 다. 장소: (주제발표)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아라컨벤션홀
(자유주제 및 분과위원회 발표) 온라인 Airmeet 플랫폼
- 라. 주최: 사단법인한국교육행정학회
- 마. 주관: 한국지방교육연구소(300만원), 제주대학교(200만원)
- 바. 후원: 한국연구재단(980만원)
- 사. 프로그램: 자유주제발표 3개 세션, 1개 기관세션 운영, 분과위원회 자유발표 4개 세션 등 7개 발표 세션, 5개 주제발표 진행



1) 제13회 소석논문상 시상

2021년 제13회 소석논문상은 건국대학교 양성관 교수님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대입전형 공정성’ 재검토”이며, 교육행정학연구 37권 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제4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시상

2021년 제4회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의 수상자는 이옥식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장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학위취득기념패 및 공로패 수여식

202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종규(연세대학교), 황재운(서울대학교)회원님께서 학위취득기념패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홍미영(이화여자대학교) 회원님께도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축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49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에서 총무간사를 맡으신 구성우 회원님과 부간사를 맡으신 권혁기 회원님께서 공로패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박남기 전 회장님, 임수진 전 사무국장님께도 학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공로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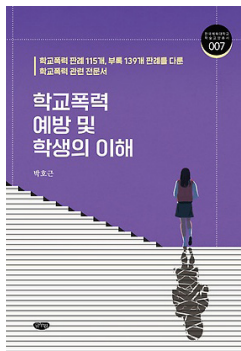
2021년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천세영 교수님(충남대학교)께 송공패를 비대면으로 수여하였습니다. 직접 학술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천세영 교수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하합니다.



6. 2021년 회원 신간 안내

1)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박호근(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글누리 | 2021년 8월 6일 출간



이 책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례 115개(부록에는 139개)를 다룬 학교폭력 관련 전문서이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 「민법」, 초·중·고교생의 특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아동학대의 주요내용과 관련 판례들을 다루었다.

2) 감동영화 감동교육

주삼환(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교육과학사 | 2022년 출간 예정



주삼환(충남대 명예교수)는 “감동영화로 배우는 교육(2021, 교육과학사)에 이어 “감동영화 감동교육” (2022, 교육과학사)를 출간하였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한다. 이 말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술은 길고 높다고 생각한다. 괜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교육도 예술을 본받고 예술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은 희망이고 희망은 예술이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므로 우리는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희망’이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교육이 예술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은 예술’이다.

3) 교육행정학

주삼환(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신봉섭(나사렛대학교), 이석열(남서울대학교), 김병윤(교육부), 김용남(한국교육개발원 공저) | 2021년 12월 31일 출간 예정

이 책은 3부-14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봉사·지원체제’라는 개념을 좀 더 풀어서, ‘교육행정가(1부-2장)가 교육행정 무대(1부-3장)에서, 교육행정의 과업(2부)을 교육행정 과정과 행위(3부)를 수행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행정 목표(제4부)를 달성하려는 교육을 위한 봉사·지원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육행정의 학문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책은 대표 저자인 주삼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께서, 2005년과 2006년 두 해에 걸쳐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의 지식 기반과 지식 구조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그러 발표한 그림(지적 개념도)에 기초하였다.

이 책은 교육행정의 이론, 연구, 실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대학원 교재, 교육행정가의 지침서, 교수 및 학자의 연구 참고용으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7. 2021년 학회 활동 보고

가) 학술대회 개최

대회 구분	일 시	장 소	주 제
춘계학술대회 (연합학술대회)	2021.05.29.(토)	온라인	지방교육자치제의 회고와 전망
하계학술대회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분과세션)	2021.06.26.(토)	온라인	한국교육 진단, 미래 교육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이슈와 과제
연차학술대회	2021.11.27.(토)	제주대학교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

나) 교육정책포럼 개최

기관명	일 시	장 소	주 제
한국교육행정학회 · 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2021.05.26. (수)	온라인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 개발원 · 한국교원교육학회 ·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06.30. (수)	온라인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원교육학회 · 2020.08.28. 온라인 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전략 탐색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 세미나 (토)

다) 국제심포지움 개최

기관명	일시	장소	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일본교육행정학회 (토) 국제 심포지움	2021.10.09.	온라인	- Responses to the Covid-19 Crisi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What lessons can we learn? -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발표: Deep democracy within wider communities: lessons learned in Korean education from the COVID-19 crisis

라) 학회 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 5회 발간

권/호	편수	발간일
39권 1호	17	2021년 4월 30일
39권 2호	9	2021년 6월 30일
39권 3호	12	2021년 8월 31일
39권 4호	16	2021년 10월 31일
39권 5호	11	2021년 12월 31일
2021년 소계	65	-
누적 총계	521	-

마) 뉴스레터 3회 발간

제호	발행일	주제/저자
제143호	2021.5.31.	주론: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30년의 회고 /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시론: 1. 창조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자치의 의미 / 김진경(국가교육회의 의장) 2. 지방교육자치 30주년에 즈음하여: 교육자치의 구성원칙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박노현(전 서울시교육감)
제144호	2021.10.31.	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 이광현(부산교대 교수) 시론: 1. 학부 5년제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 이혁규(청주교대 총장) 2.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변화 방향 / 김병찬(경희대 교수) 3. 교원양성체제, '실습학기제'로부터 / 최진욱(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제145호 2021.12.31. 주론: 2022 학회 활동을 시작하며 / 박선희(제50대 학회장)
 시론: 1. 대선정국에 즈음하여 / 임연기
 2. COVID-19 이후 학교가 나아갈 길 / 김혜영
 3. 어느 교육행정 연구자의 부끄러운 실존적 고백 / 김병찬

바) 정책연구 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올해 총 6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학회기여금 (간접비)	발주기관
2021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연구리포트	김두정(충남대)	2021.02.19. ~ 2021.04.30.	300,000원	국가교육회의
제주미래교육 비전 수립 연구 용역	김성기(협성대)	2021.02.19. ~ 2021.04.30.	2,733,545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대학원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박수정(충남대)	2021.04.16. ~ 2021.07.14.	1,000,000원	경기도교육청
대전외국어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	박수정(충남대)	2021.04.20. ~ 2021.10.19.	1,000,000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백선희(경인교대)	2021.06. ~ 2021.09.	1,021,818원	교육부(APEC IACE)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	나민주(충북대)	2021.08.24. ~ 2022.01.05.	2,058,100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 2021년 회비납부 명단(2021년 12월 23일 기준)

1) 2020년도 3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5명)

김은정, 김효정, 이한나, 정설미, 정희욱

2) 2020년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4명)

구성우,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3) 2021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84명)

강소윤, 강신철, 고미옥, 구미례, 국준봉, 권영성, 김정희, 김범주, 김보경, 김새론, 김영옥, 김용준, 김은혜, 김정완, 류지은, 문지영, 민병성, 민자원, 박광선, 박동찬, 박성민, 박수아, 박수진, 박시진, 박은정, 박정희, 박종열, 박현석, 배진희, 설가인, 손다운, 손판이, 신원규, 안성률, 안지혜, 오혜근, 은수진, 이고은, 이병도, 이서연, 이성아, 이성희, 이수지, 이승민, 이승연, 이승현, 이영선, 이원재, 이유경, 이정민, 이태화, 이 혼, 임혜진, 장민정, 장서진, 장석우, 장신애, 장우천, 장유빈, 전주현, 정수영, 정재민, 조선미, 조성은, 조은주, 조지혜, 지혜영, 진형정, 최성규, 최수연, 최연우, 최지혜, 한지혜, 허 정, 황영식

GAO MENGXUE, KANG YUHAN, LI YAN, WANG RUOTIAN

4) 2021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45명)

장민수, 장원근, 강은숙, 강제혁, 권순형, 권초아, 권혁기, 권희청, 김정현, 김정희, 김나영, 김덕근, 김도기, 김민규, 김상규, 김성열, 김성천, 김승정, 김영식, 김유원, 김정아, 김정원, 김종규, 김지선, 김지연, 김지현, 김진희, 김현진, 김혜진, 김훈호, 김희성, 노지영, 류명혜, 명주영, 모영민, 문찬주, 민윤경, 박광선, 박균열, 박삼철, 박상민, 박세준, 박세진, 박세훈, 박영림, 박유민, 박정우, 박정인, 박종필, 박주호, 박준현, 박태양, 박호근, 박효원, 백승주, 백정하, 변기용, 서시연, 서지영, 서지현, 서화정, 석재현, 선미숙, 선애경, 손성옥, 송경오, 송진주, 송효준, 신봉섭, 신상명, 신재영, 신정철, 신철균, 신하균, 신하영, 신현석, 심현기, 안영은, 양성훈, 양윤정, 염민호, 유동훈, 윤 정, 윤기현, 윤예지, 윤혜원, 이기용, 이미희, 이민규, 이상호, 이성은, 이수정, 이승호, 이승희, 이영선, 이유진, 이에슬, 이원재, 이은혜, 이인수, 이정화, 이재선, 이주희, 이진권, 이창수, 이평구, 이해직, 이호준, 임수진, 임희경, 임희진, 장민정, 장혜원, 전수경, 정성수, 정양순, 정영현, 정유리, 정은경, 정은하, 정재안, 정재균, 정현주, 조미애, 조석훈, 조영하, 주회정, 차지철, 채송화, 채윤정, 최미숙, 최상훈, 최예슬, 최원성, 최준렬, 하동엽, 한은정, 한은정, 한재범, 허 주, 홍미영, 홍원일, 홍지오, 황선필, 황윤한

5)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명)

윤정일, 고전

6)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39명)

김민조, 김민희, 김병주, 김병찬, 김왕준, 김 용, 김이경, 김정희, 나민주, 박경호, 박상완, 박소영, 박수정, 박영숙, 박종필, 박주형, 백정하, 송기창, 신재흡, 신정철, 엄문영, 엄준용, 오범호, 유길한, 이길재, 이석열, 이쌍철, 이인희, 이재덕, 임수진, 장덕호, 전제상, 정동욱, 정성수, 정제영, 주현준, 차성현, 하봉운, 허병기, 홍창남, 황준성

7) 2020년도 기관회원 납부(7)

경기도교육연구원, 국회도서관, 남서울대학교도서관,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셨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김용준 부간사(010-2430-1532, keas1967@daum.net)

9. 제 49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고전(제주대)
- 부 회 장: 박선형(동국대)
- 감 사: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 32인

김영식, 신극범, 신철순, 김명환,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전, 박선형

• 선임직 이사 65인

고장완(성균관대) 김규태(계명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민조(청주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성기(협성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이경(중앙대) 김정희(대교협)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경호(KEDI) 박대권(명지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수정(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형(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정철(서울대) 신재홍(한성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엄문영(서울대) 엄준용(중부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수정(단국대) 이승호(KEDI) 이쌍철(KEDI) 이인희(제주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이정미(충북대) 이필남(홍익대) 임수진(광주여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정동욱(서울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최정윤(KEDI) 하봉운(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홍창남(부산대) 황준성(KEDI)

■ 분과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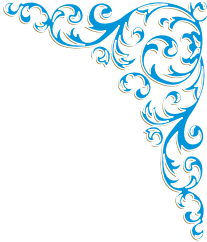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홍보 위원회	홍창남 (부산대)	이쌍철 (KEDI)	김용(한국교원대)	김용련(한국외대)	김한나(충신대)
			김혜영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안선희(중부대)	이덕난 (국회입법 조사처)
			이동엽(KEDI)	한은정(인천대)	
학술위원회	박상완 (부산교대)	김민조 (청주교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훈호(공주대)	변수연(부산외대)
			박소영(숙명여대)	이경호(고려대)	이길재(충북대)
			이인회(제주대)	이희숙(강남대)	
학회지 편집위원회	김왕준 (경인교대)	김민희 (대구대)	김혜진(KEDI)	박수정(충남대)	박종필(전주교대)
			송경오(조선대)	양성관(건국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장덕호(상명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성수(대구교대)
			함승환(한양대)	허주(KEDI)	
조직규정 위원회	김용 (한국교원대)	이덕난 (입법조사처)	고장완(성균관대)	김순남(신한대)	박대권(명지대)
			서재영(KEDI)	엄준용(중부대)	임수진(광주여대)
			전수빈(동국대)	주영효(경상대)	
재정기금 위원회	백정하 (대교협)	이석열 (남서울대)	서지영(대교협)	송효준(KEDI)	신동훈 (청소년정책연구원)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흠(한성대)	이수정(단국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포럼운영 위원회	황준성(KEDI)	신경석 (평생교육원)	강호수(경북대)	김성기(협성대)	김종규(연세대)
			박효원(KEDI)	배영직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신정철(서울대)
			유경훈(KEDI)		
국제학술 위원회	정동욱 (서울대)	이필남 (홍익대)	김용(한국교원대)	김현준(미네소타대)	민윤경(KEDI)
			박주호(한양대)	변수용 (펜실베이니아대)	이전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수연(큐슈여대)		
학술편찬 위원회	김병주 (영남대)	차성현 (전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용(한국교원대)	김이경(중앙대)
			박수정(충남대)	배상훈(성균관대)	변기용(고려대)
			윤홍주(춘천교대)	이병식(연세대)	정제영(이화여대)
정책연구 위원회	장덕호 (상명대)	김규태 (계명대)	김용기(경기도청)	박경호(KEDI)	박인심(서울여대)
			이승호(KEDI)	이정미(충북대)	차지철(동명대)
			최정윤(KEDI)		
연구방법론 위원회	송경오 (조선대)	신철균 (강원대)	김병찬(경희대)	박선형(동국대)	변기용(고려대)
			변수연(부산외대)	이성희(KEDI)	정바울(서울교대)

■ 분과위원회 구성

미래학교 연구위원회	정제영 (이화여대)	박주형 (경인교대)	남미영(서울강술초)	노정서(신남중)	박준현(대구장기초)
			박희진(계명대)	선미숙 (미래교육연구소)	이기용(안동대)
			이남경 (광운전자공고)	장혜원(KAIST)	정예화 (미래교육연구소)
			최정원(만월중)		
신진학자 지원위원회	엄문영 (서울대)	이승호 (KEDI)	김영식(경남대)	김훈호(공주대)	오범호(서울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임소현(KEDI)	최원석(경인교대)
부회장선출 관리위원회	김이경 (중앙대)	이인회 (제주대)	김기수 (경기교육연구원)	김달호(동아대)	남수경(강원대)
			박삼철(단국대)	이정기(백석대)	정수현(서울교대)
			채재은(가천대)		
윤리위원회	임연기 (공주대 명예)	김정희 (대교협)	김홍주(세명대)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노종희(한양대 명예)	박영숙(KEDI 석좌)	서정화(홍익대 명예)
			이차영(한서대)	최준렬(공주대)	
소석논문상 위원회	주삼환 (충남대 명예)	서정화 (홍익대 명예)	강인수(수원대 석좌)	김혜숙(연세대)	노종희(한양대 명예)
			박세훈(전북대)	신중식(국민대 명예)	이종재 (서울예대법인 이사장)
			임연기(공주대 명예)		
주삼환 리더십상 위원회	김성렬 (경상대)	한유경 (이화여대)	김이경(중앙대)	박남기(광주교대)	박영숙(KEDI 석좌)
			신봉섭(나사렛대)	신재흡(한성대)	신현석(고려대)
			주철안(부산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